

# 김혜연 KIM Hyeyeon



김혜연은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자,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다. 김혜연은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다. 김혜연은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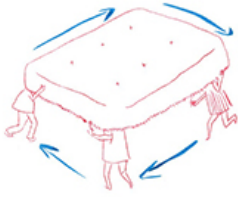
<김혜연> **안녕하세요 (Trailer for Take Care)**, 2019년 8월 20일, 2019

## # Q&A

Q. 김혜연 감독은 어떤 감독인가요?

A. 김혜연 감독은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자,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다. 김혜연 감독은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다. 김혜연 감독은 2018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공동 감독이자, 2019년 개봉한 영화 《안녕하세요》의 감독이다.

NOTE FOR ACTORS



Four people keep circling.  
 You desperately want to catch up the person in front of you,  
 while keeping the square.  
 You desire.  
 You hesitate.  
 You don't know what to do.  
 But You keep going.  
 Make any sound or any gesture that comes naturally.  
 Once camera begins to run, it will go for 2min45sec.  
 Any mistake or failure will be part of the 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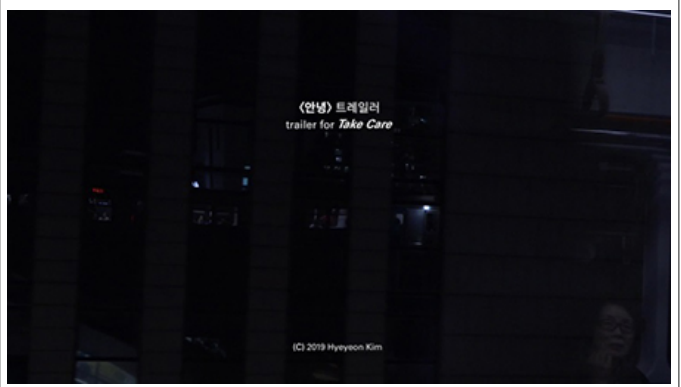
Running Square, 21.6x27.9cm, 2011

Running Square, 16mm film, 2011

Q. Running Square (2011)의 주제를, 이 작품의 맥락에서 설명하시오?

A. Running Square (2011)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사회적 규범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네 명의 배우가 정사각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따라달리려 하는 상황은, 개인적 욕망과 집단적 의무 사이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단순한 움직임의 반복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실험적인 영상 언어를 보여준다.





<연성> 트레일러(Trailer for Take Care), 연성 김, 2019, 8분 20초, 2019

연성 김의 작품은 종종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 트레일러는 영화 <연성>의 예고편으로,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탐구한다. 작품은 시각 장애인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관객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연성 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트레일러는 영화 <연성>의 예고편으로,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탐구한다. 작품은 시각 장애인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관객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연성 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연성(Take Care), 연성 김, 30분, 2019

Q. 연성 김의 작품,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A. 연성 김의 작품은 종종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 트레일러는 영화 <연성>의 예고편으로,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탐구한다. 작품은 시각 장애인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관객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연성 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트레일러는 영화 <연성>의 예고편으로,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탐구한다. 작품은 시각 장애인 주인공의 경험을 통해 관객에게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킨다. 연성 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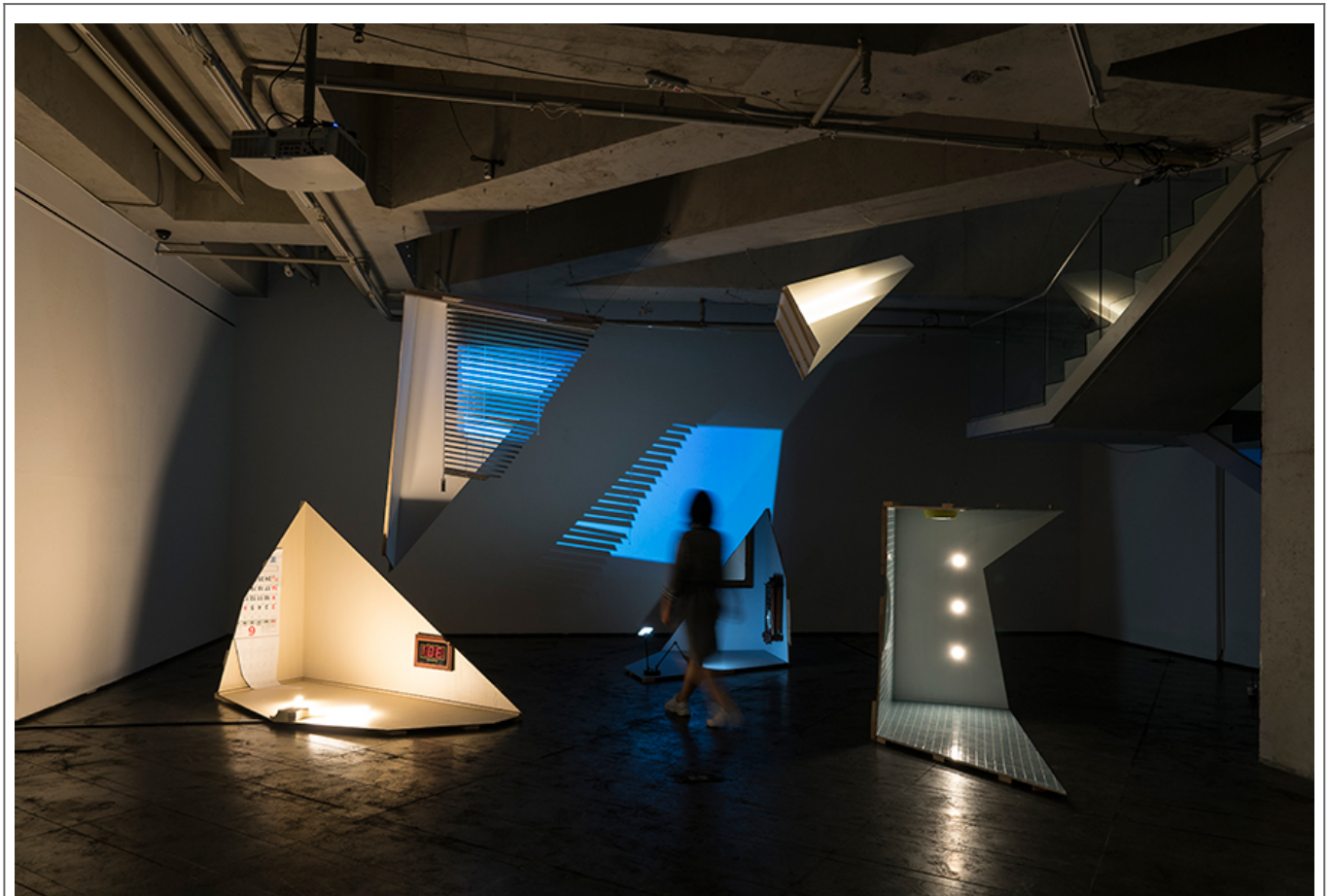


# MIN Ye-eun



이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이다. 관객은 '0'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은 관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보여준다. 관객은 '0'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은 관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이다. 관객은 '0'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은 관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보여준다. 관객은 '0'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은 관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보여준다.



hyun happyj33, 서울, 한국, 2019

## # Q&A

Q.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A. 00 '0'0 00 000 000 000 000 000000 00 0000 00. 00(00)0 0000 0 0, '0000 00'0 000 0'030 00'0000 00 000 000 00000 00000, 0 0000 00 0 00 0000 00. 00 00 00000 00 00 000 00 0 00000 00 000 000 0 000 00 000 000 00000 00 00 00000 0000 00 00000 00 000 00 000 000 00000. 00 0 0000 00 0 0000 0000 0000 0000.

00 00 '00 00'0 00 00 00000, 00 00 000 000 00 00 000 00 00000 000 00 00. 00 00000 00 000 0 00 00 00 00 00 00000 0000 00 000 000 0000 0. 00 00 000 000000 00 000 0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0 0000 0000 00 0000 0 00000. 00 00 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 00000. 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00 0000 0000 0 000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0. 00 00 00000 000000 0 0000 0000 0 00 0000 000000 00000 00.



0000, 00000, 0000, 0000, 000000, 00, 00, 120×120×50cm, 2012



0(0), 00 00, 00000, 2017

Q. 0000 00000 00 00(00 00)0 00000, 0 000 00000?

A. 00000 000 00000 '0000 00'0 000000 00 00000 00, 00 0 000 00000 000 00 0000, 000000 00000 00000 0000 00 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0 '00'

이 작품은 2013년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 400x500x390cm, 2013

이 작품은, 2019년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공간비행' 전시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 □□, □□□□, □□, □□□, □□, □, □□□□, 2019

Q. 00, 000 0000 000 000

A. 000 00 000 000 00 00 00 000 000 000 00000 0000. 00 000 0000 00 0 00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 00 000 000 00 0000 000 00 00, 00 00 00 000 00000 0 0 00 00000 0000 00 0 00 000, 00 00 0 000 00000 000 00000 000 000 00 000 00. 000 0000 00 000 000 0 00 000 00. 00 000 000 000 00 0000 000 00000, 000 000 00 0000. 00 0000 00 <000000hyun00happyj33000000000000000000...> 00, 0000 00 0 0000 000 00 000, 000 000 0000 00 000 000 00000 000 0 00. 00 0000 0 0000 00 0 0, 0 00 000 00 000 00000 0000. 0 000 '000 000 0 0000 0000 00 000 000' 00 0000 000 00000, 0000 000 00 00, 00 00 00 00. 00 0000 000 00 0000 000000 000000 0 0 00.



00, 000 00, 50x70cm(5pcs), 2019

Q. 0000 00 000 000 00 00 00.

A. 00 00, 00, 00, 00, 000 00 0000 0000. 0000 00000 00, 000 00 00 0 0000 00. 00 0 0000 0000 00 000 0000 0000 000 00, 000 00 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0 00 000 000 00000 0 000 0 0 00. 000 000 00 00 00 000 0000 0000 0000. 00 000000 000000 000000 000 0 00 000 00 000 00 00, 000 0000 000.



이,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오오, 2019

Q. 이 작품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A.



이름 : [yeeunmin.net](http://yeeunmin.net)

# YOUN Jiyoung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적 코드를 탐구한다. 타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 규범을 상징하는 문신이다.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적 코드를 탐구한다. 타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 규범을 상징하는 문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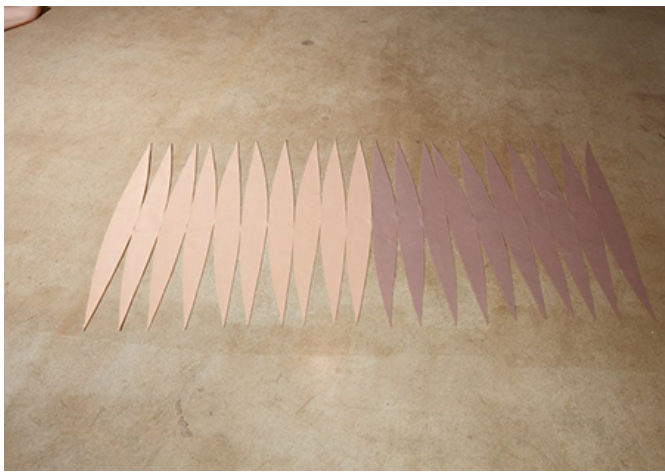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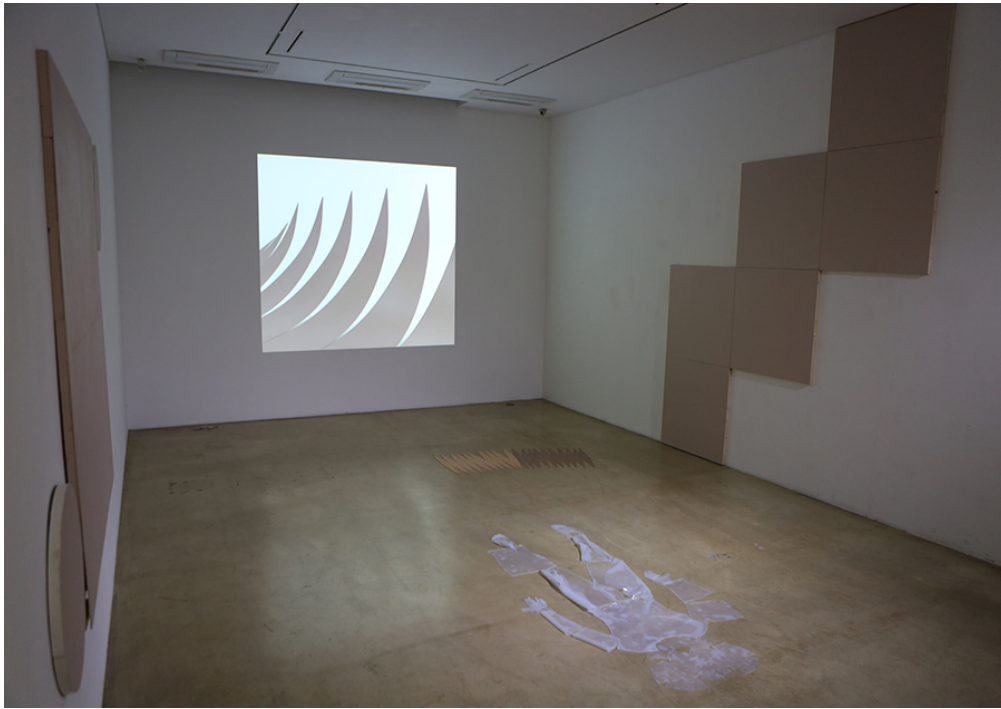


타투, 170x221x166cm, 230x60x60cm (3pcs), 조각, tattoists: BAKA, Ida, Sunjae, 2019 (조각가 3명)

## # Q&A

Q.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적 코드를 탐구한다. 타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 규범을 상징하는 문신이다. 이 작품은 '타투'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적 코드를 탐구한다. 타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 규범을 상징하는 문신이다.



이 작품은 **구(No Planar Figure of Sphere)** (구, 2018)이다.

Q. 이 작품은 구(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A. 이 작품은 '구(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구(구)는 평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3차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구(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작품은 구(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구)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무관심 (Regardless)**, 40 33분, 30분 영상 3편, 2018

Q. 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요?

A.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무관심'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목격하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한다. 이 작품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관심을 버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영준(Seeing things the Way We See the Moon), 2014, 45cm, 캔버스, 2013-2014

Q. 이 작품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A.



이영준 : [jiyoungyoon.com](http://jiyoungyoon.com)

이영준 JANG Pa



2009年，她以《X》系列作品，探讨了“X”这一概念。她认为“X”是一个开放的、多元的符号，它既可以代表未知、危险、禁忌，也可以代表探索、突破、创新。她通过《X》系列，将个人的情感、经历、思考，融入到对“X”的诠释中，创造出一种独特的视觉语言。



2015年，她创作了《X》系列作品，尺寸为181.8x227.3(cm)，2015年。

# Q&A

Q. 2015年，您创作了《X》系列作品，能否分享一下创作背后的故事？

A. 《X》系列作品的创作，源于我对“X”这一概念的深入思考。我认为“X”是一个开放的、多元的符号，它既可以代表未知、危险、禁忌，也可以代表探索、突破、创新。我通过《X》系列，将个人的情感、经历、思考，融入到对“X”的诠释中，创造出一种独特的视觉语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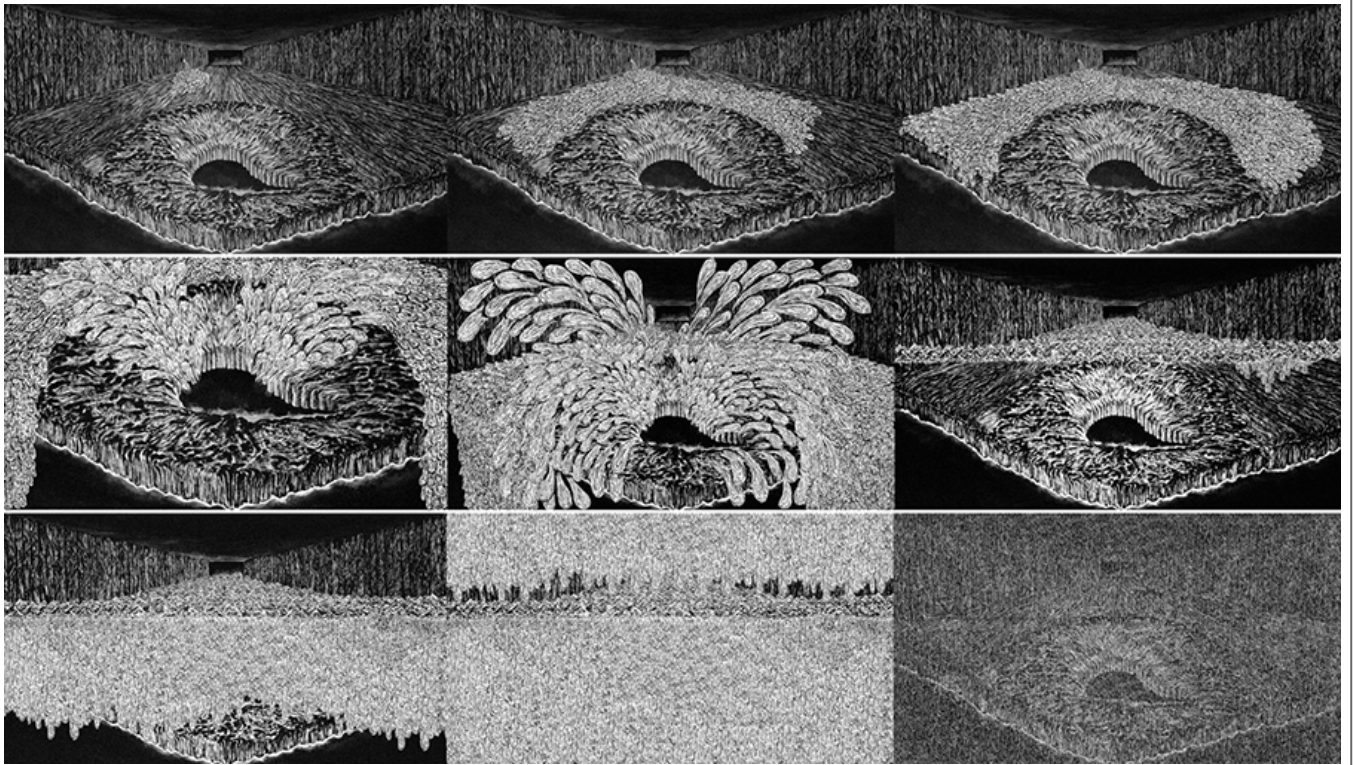












**The End of the World series**, 00:00:55,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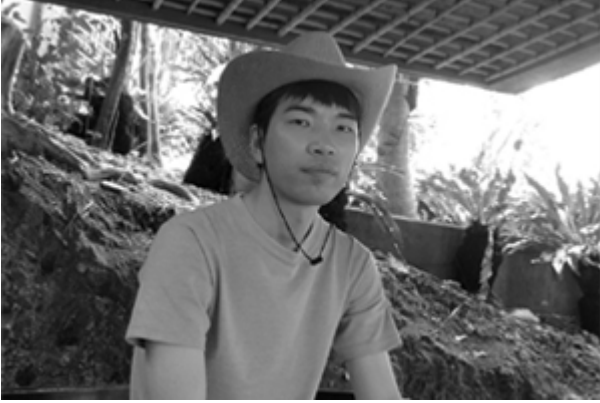
Q. 이 작품의 주제를 설명하시오?

A.



작가 : [www.jangpa.net](http://www.jangpa.net)

작가 **LEE Byungsu**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5, 15F, HMD gear, EL 1001, 2019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5, 15F, HMD gear, EL 1001,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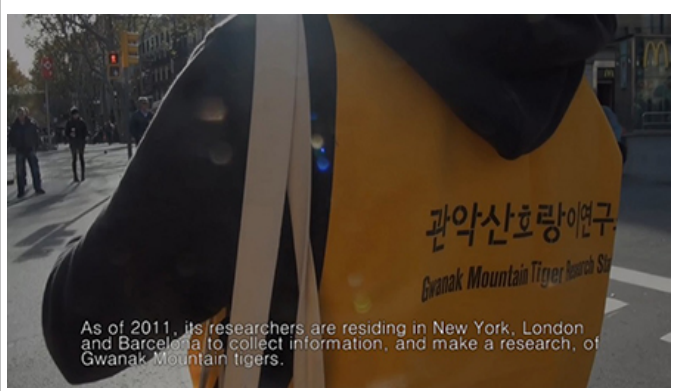
### # Q&A

Q.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5, 15F, HMD gear, EL 1001,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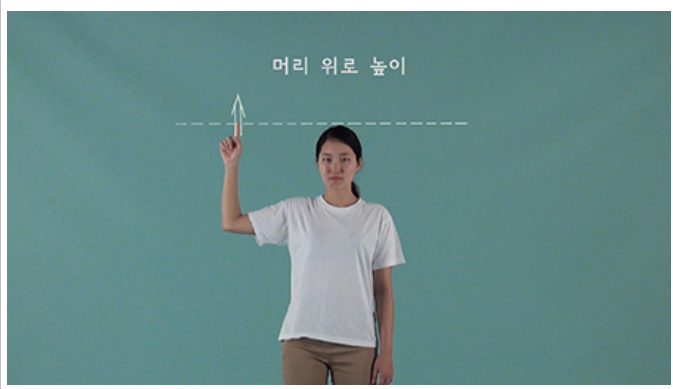
A. 2019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5, 15F, HMD gear, EL 1001, 2019







0000 0000 0000 0000 00, 30 170, 000 00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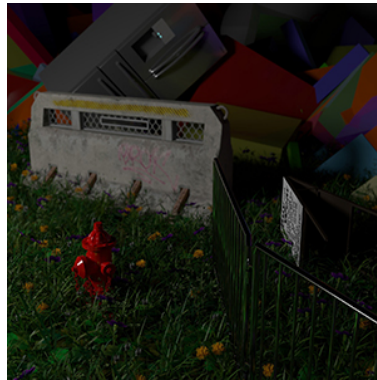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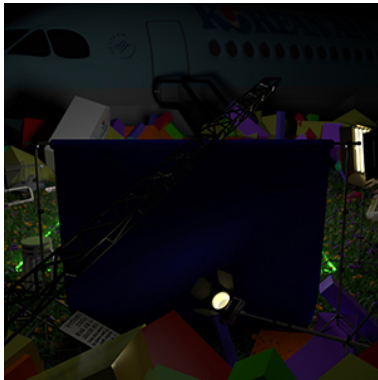


0000 000 00000 0000 700 00, 40, 000 000, 2013

Q. 00, 000 0000 000 000

A. 000 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00 000 000 0000 000 00. 00 000, 000 0 0000 000 000 000 0 0 0000 000 000 0 00 000 000. 000 0 00 000 000 00 000 00 00 000 00000 00000 000, 0 00 0000 000 000 00000 0000 000 000 0 00 000 000 000. 000 0000000 00000 00, 000 000000 00000 000 000 00 000 00000. 000 '000 000'00 0 00, 000 0000 0 00 000 000 00 00000 000 000 00000. 0 000 000 00000 000 00 000 000 00000 000 000000 00 000 00 000 000 0 00 0 00 00 0





이 작품은 5개의 32x37cm 크기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 제작되었습니다.

Q. 이 작품의 주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작품명 : [www.leebyungsu.com](http://www.leebyungsu.com)



# □□□ CH0E Soorye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韓國 韓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國'國國 國  
國國 '國國國國國 國國'國 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 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 國  
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國 國國 國 國國 國 國國 國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 國 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 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國 國. 2013國 國 國國 國 國  
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 國國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 國 國國國  
國 國國國國國國國 國 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 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 國國國 國 國國  
國. 國 國 國國 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 國 國 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 2~3國 國國 國國國 國 國國 國國 國國國 1980~90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 國 國國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國國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國 國 國國 國 國 國國  
國 國國國(國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 國國 國 國 國 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 國 國國國  
國 國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 國國國 國 國 國 國 國國 國國. 國國  
國 國國 國 國 國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 國國 國國 國國 國國. 國 國國國 國  
國 國國國 國國 國 國國國國 國 國 國 國 國國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 國國國國 國國 國國 國國 國國國.







Orhan Pamuk, Blue Room, 130x163cm, 2017

Q. Orhan Pamuk, Blue Room, 130x163cm, 2017

A. Orhan Pamuk is a Turkish novelist, short story writer, and screenwriter. He is the author of 50 books, including the novel 'The Blue Room'. The painting 'Blue Room' is a work of art by Orhan Pamuk, who is also a writer. The painting is a portrait of a woman in a green and blue dress, standing in a room with a large, abstract, light-colored shape in the background.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various shades of blue and green. Orhan Pamuk is a Turkish novelist, short story writer, and screenwriter. He is the author of 50 books, including the novel 'The Blue Room'. The painting 'Blue Room' is a work of art by Orhan Pamuk, who is also a writer. The painting is a portrait of a woman in a green and blue dress, standing in a room with a large, abstract, light-colored shape in the background.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dominated by various shades of blue and green.



□□□□ □□ □□□□ 220×180, □□□ □□, □□□□, 2019

Q.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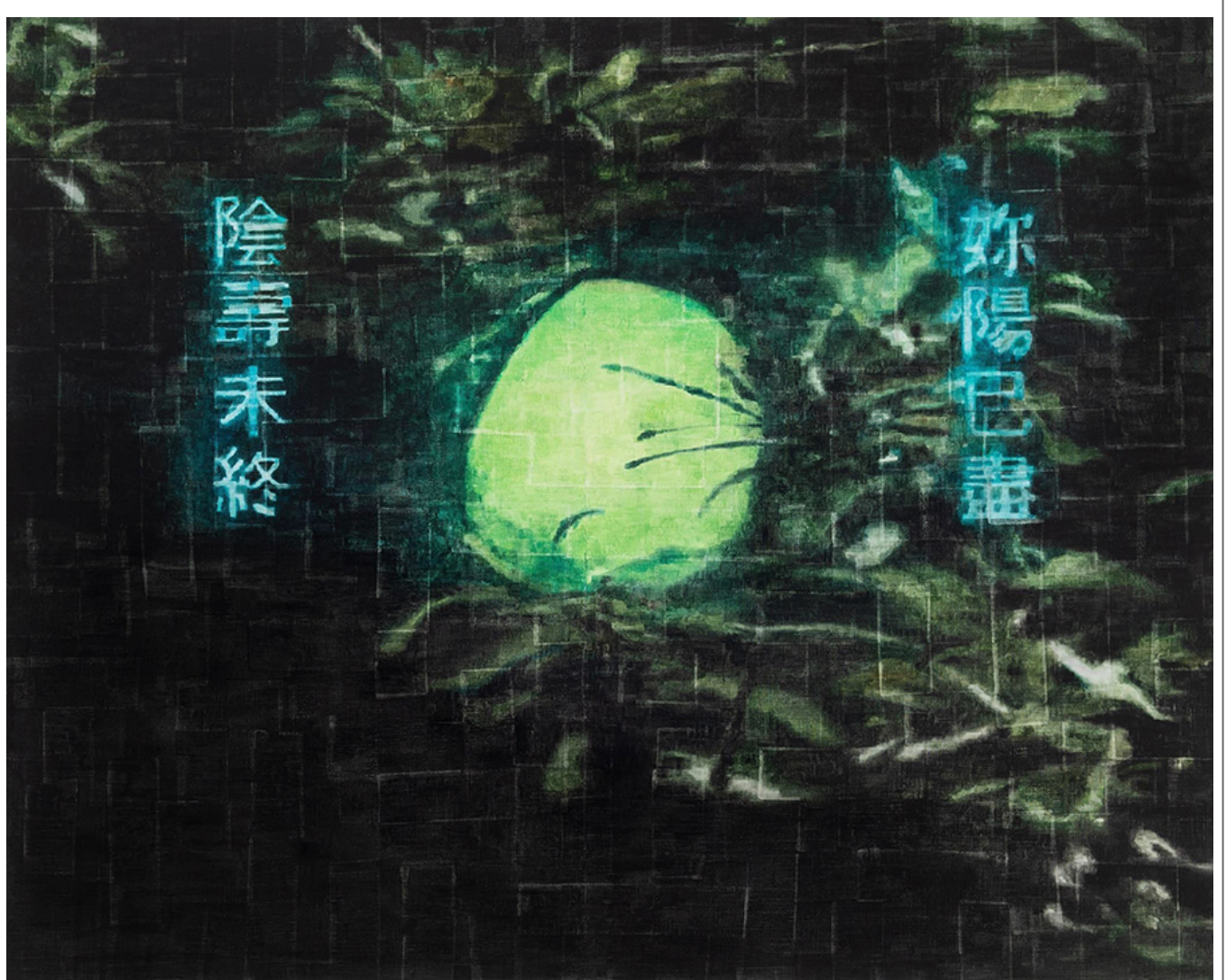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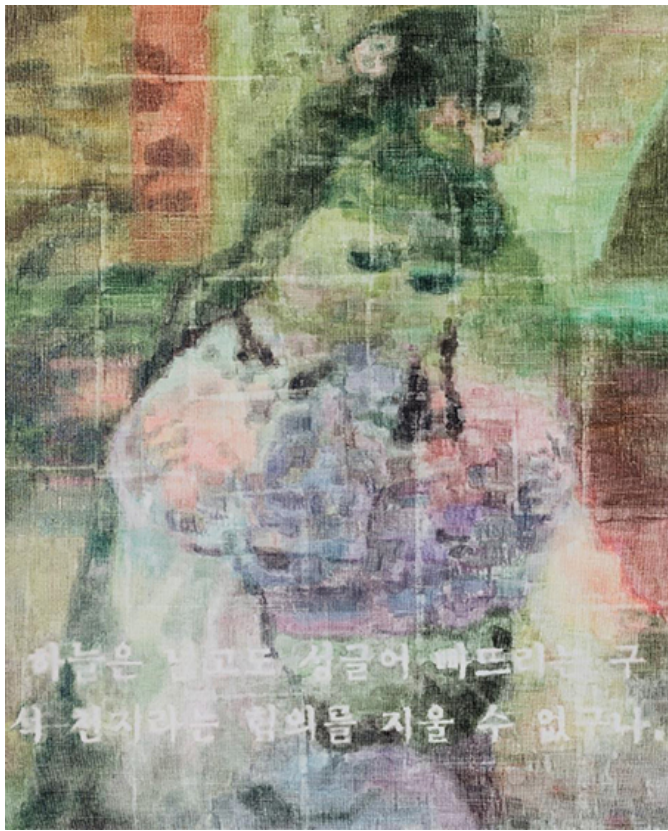
Q.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our life on earth is exhausted but your life in hell is unfinished), 180x220cm, ■■■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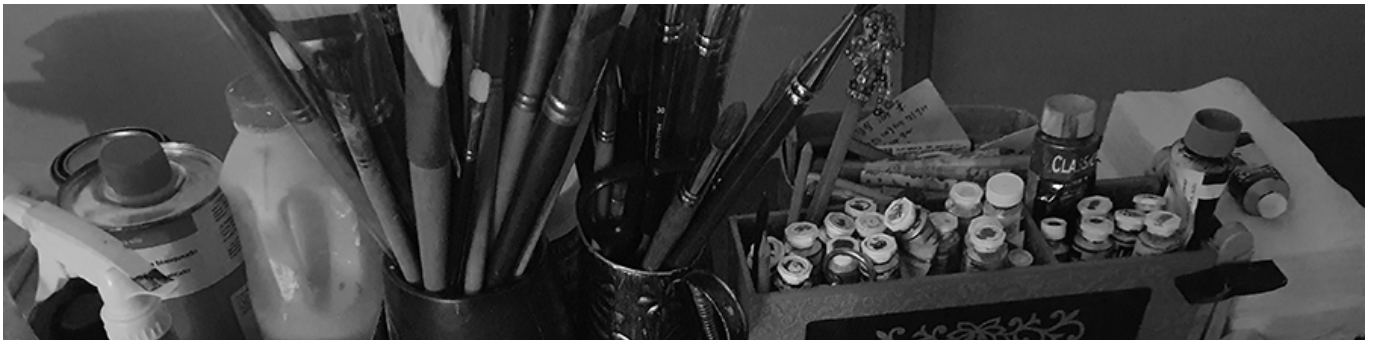
□□ □□ □□, 80x65cm, □□ □□, 2018



□□□□ □□, 45x45cm, □□ □□, 2018

Q. □□ □□ □□ □□, □□□?

A.



□□□ **CHO Sookhyun**



2016년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8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은 2015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6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다.

2016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8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은 2015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6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8년 10월, 2018

# Q&A

Q.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품인가요?

A.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은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5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6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은 2015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2016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 2017년 <두 개의 문, 두 개의 문>을 통해 'two way art'의 2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김기라  
김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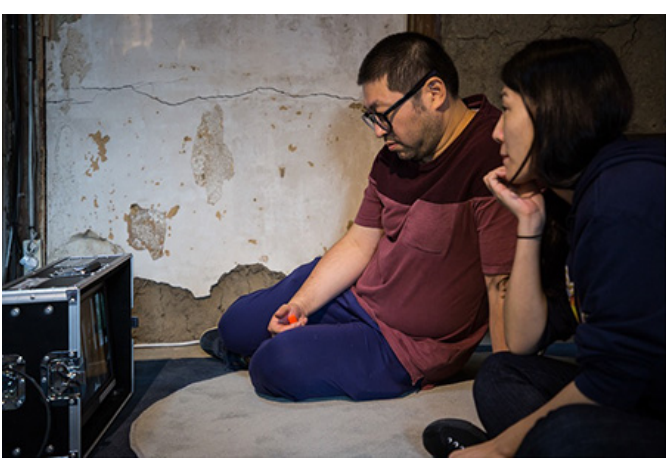
2019. 10. 10-25 보안여관

×  
사랑

기획, 조속현 부제이더  
전시진행, 김유관 (BOAN)1942 부제이더  
퍼포먼스, 박경웅·이현희·  
정미경·이선주·김용식·  
김선동·문주민  
공연, 정은혜 리스레,  
아날로그스년·차선수  
촬영감독, 김준현  
조명감독, 임희수  
글, 이선영·현시원  
그래픽디자인, 손혜인  
사진, 정효섭

퍼포먼스 일정.  
2019. 10. 10. pm 6 opening  
2019. 10. 24. pm 6

후원 기관  
KORADDP, KOBAC, SBS ETV, LG, KINOKOJI, BOAN, KINOKOJI GALLERY, KINOKOJI, KINOKOJI, KINOKOJI, KINOKOJI



OX-00 : 000 X 0000, 00 000, 000 0000, 2018



OX-00 : 000 X 0000, 00 000, 000 0000, 2018

OX-00 : 000 X 0000 (0000), 000 0000, 2018

Q. 00, 000 0000 000 000

A. 000 0000 00000 000 0000. 000 00000 00(boundary)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 0000 000 000 0000 000 000 0000 00 00000 00 00 000. 0000 000000 000 00000 00 000000 000000 000 0000 00 00 00 0 000000 000000 0000 0 0000.

**바로 어젠**

바로 그 지평을 보고전

2018.10.20.-10.30

www.ifacor.kr

**바로 그 지평 결과 보고전**  
바로 오늘

**일시**  
2018년 10월 20일(토)-  
10월 30일(화)  
12:00-18:00

**오프닝**  
2018년 10월 20일(토)  
17:00

**장소**  
인천생활문화센터  
철동마당

**기획**  
박혜민, 신재훈,  
이양현, 조숙현

www.ifacor.kr

**참여 아티스트**  
시각: 강민정, 권운지, 김덕원, 김동희, 김리아, 김운선,  
김지인, 문지혜/이창훈, 박혜선, 박성은, 김서영, 업소원,  
송아영, 안보미, 이빛나, 이인영, 이효영, 최진연

**공연** 경기남부재즈, 풀(POTT), 화분

**청년예술인 생애처음 «상대적 모양»**  
강현수, 박지선, 윤수현, 이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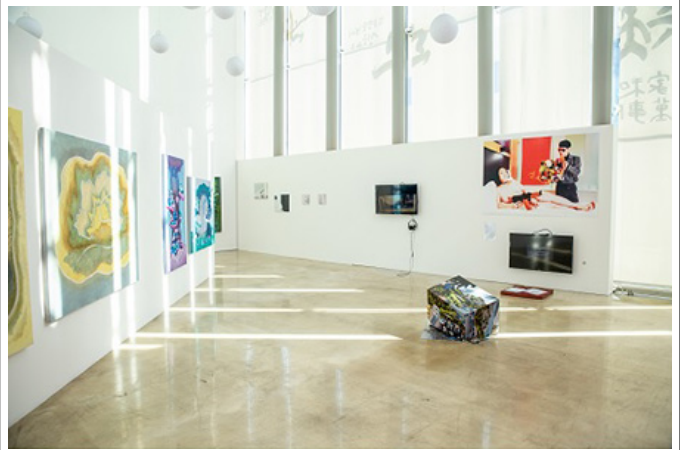
**공연 프로그램**  
10월 20일(토) 16:00 이지현, «언어외 일정한  
범위이거나 한계를 벗어나다»  
18:00 POTT, «Piri on the Turntable»  
10월 27일(토) 15:00 경기남부재즈, «非 Gut (Be good)»  
18:00 화분, «삼바밴드 화분 콘서트»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2018년 10월 20일(토) 14:00-17:00  
신재훈, «재로 그라운드», 인천아트플랫폼E, 스튜디오21  
신재훈, «작가와 대화-가이아»,  
인천아트플랫폼E, 스튜디오4  
조숙현, «비엔날레 작가되기», 제이스튜디오키친  
박혜민, «지역과 네트워크 하기», 제이스튜디오키친

**라운드 테이블: 오늘 없는(Without Today)**  
일시, 2018년 10월 27일(토) 15:00-17:00  
장소, 제이스튜디오키친  
패널, 박기현(인스타그램루프 운영자),  
박수지(보안여관 큐레이터), 적극(연출가)  
진행, 이양현



2018 10 20 10 30, 2018



www.ifacor.kr (www.ifacor.kr), 인천 생활 문화 센터, 2018

www.ifacor.kr (www.ifacor.kr), 인천 생활 문화 센터, 2018

Q. 인천 생활 문화 센터 (www.ifacor.kr), 2018

A. www.ifacor.kr (www.ifacor.kr), 인천 생활 문화 센터, 2018

Q. 인천 생활 문화 센터 (www.ifacor.kr), 2018

A.



## □□□ CH0 Kyoungja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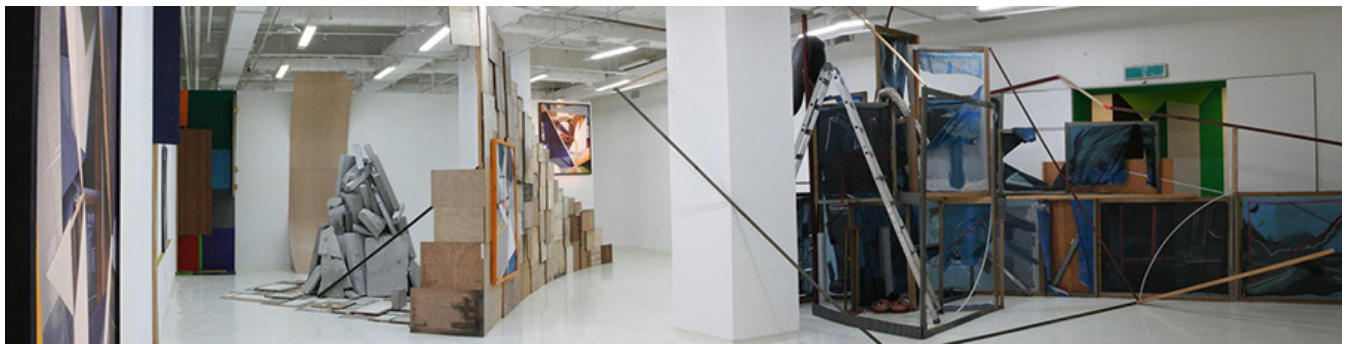


□□ □□, 120x120cm, □□/□□□ □□□, 2017

Q.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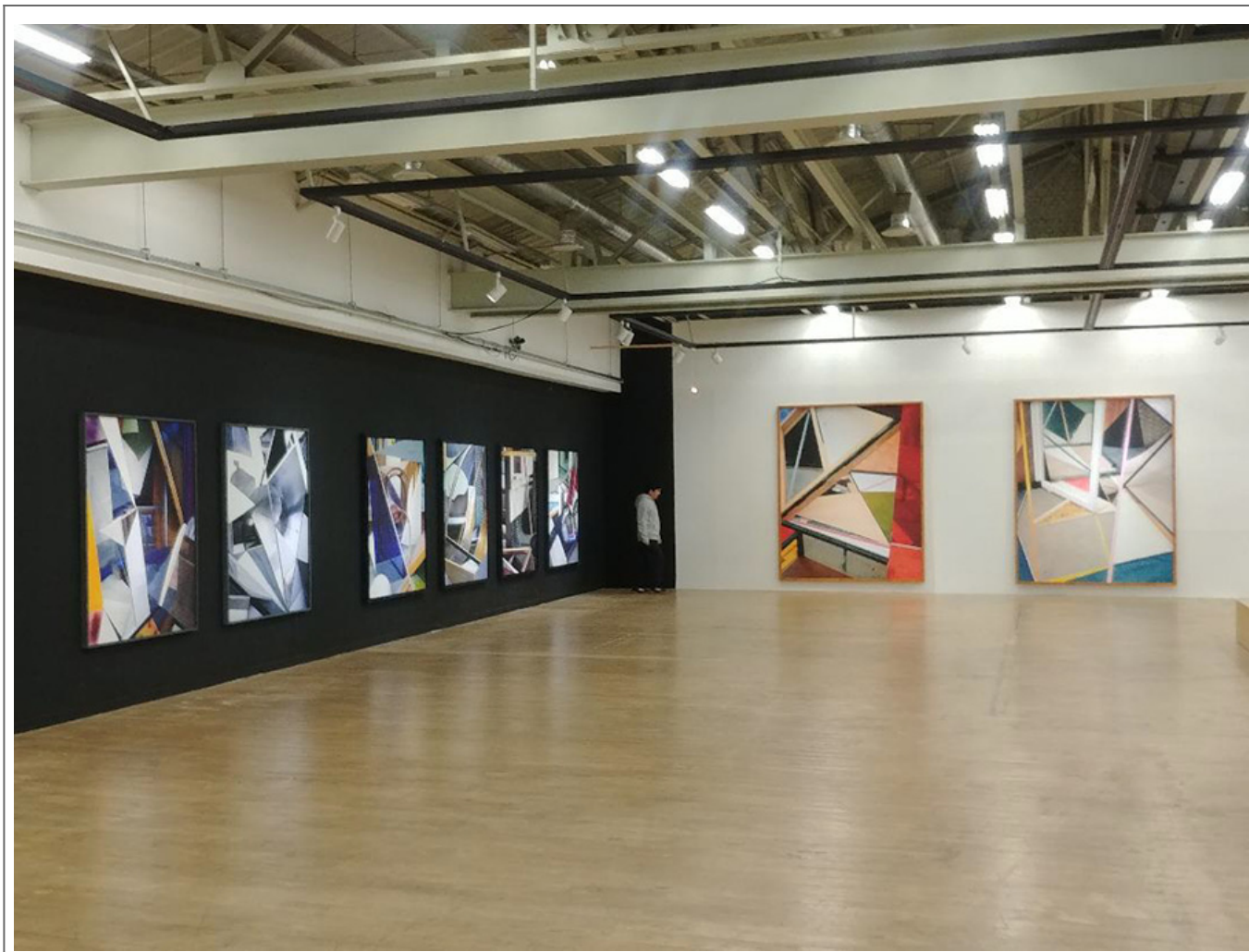


5.5 00 00, 00000(000 00), 2016

Q. 00, 000 0000 000 000

A. 00 0000 000 00 0000 000 '000 000 00 000000 0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0 000 000 0000 0 00. 00 000 00 0000 000 00000. 00 00 0000 00 000 000 000 000000 0000. 00 00 0 000 000 00000 00000 0 00 000 000.





이영재 2019년, PS333(공간), 2019

Q. 이영재 2019년, PS333(공간)?

A.



이영재 : <http://kyoungjaecho.artists.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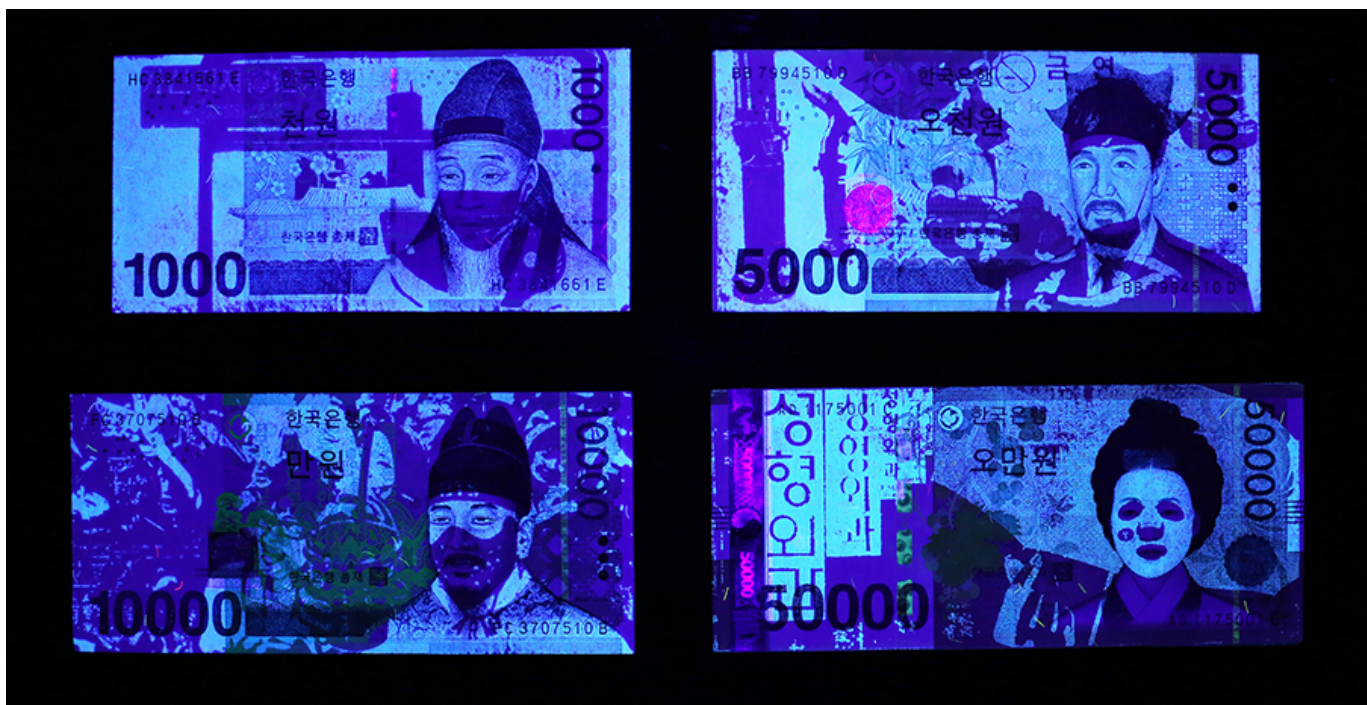
# □□□ □□□□ Roľand FARKAS



Roland FARKAS was born as a member of the Hungarian community in the closed society of the former socialist Czechoslovakia. He has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a communist society to a capitalist one in his early

teens. After years of musical experimentation in different punk rock bands FARKAS's interest gradually shifted towards visual arts. The artist moved to Budapest, Hungary ten years ago where he recently lives and works. During his art studies the artist became interested in the issues of contemporary life's effects on interpersonal values and human condi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Q&A

**Q.** Introduce your work in general and the process of creation/production.

**A.** My recent works are ironic reflections on today's universal capitalism. After realization of conceptual artworks mostly dealing with the role of art today, ten years ago I started to focus on the topic of 'money' as the symbol of current economic system. Banknotes – as the main material of these artworks – during the artistic process usually turn into an illustrative tool to reveal the system's defects. I am also interested in money's role as the common means of communication used in our daily lives that connects and separates people at the same time. In my previous projects realized with audience involvement I have modeled the devaluation of money in the post-crisis Argentina. I have examined the radical impact of the last few decades' economic boost on South Korean society and analyzed the radical difference between art's commercial and intellectual value in the Netherlands and Hungary. My works are realized in various media.

**Q.** 你的作品是關於什麼，你是如何創作的

**A.** 我的作品是關於資本主義的諷刺性反思。在實現了主要處理藝術今天的作用的概念藝術作品後，十年前我開始專注於「錢」作為當前經濟系統的符號。紙幣——作為這些藝術作品的主要材料——在藝術過程中通常變成一種揭示系統缺陷的說明性工具。我也對錢在我們日常生活中作為連接和分隔人們的常見溝通手段感興趣。在我以前的參與觀眾的作品中，我模擬了後危機阿根廷的貨幣貶值。我研究了過去幾十年經濟增長對韓國社會的深刻影響，並分析了荷蘭和匈牙利藝術的商業價值和智力價值之間的巨大差異。我的作品以各種媒介實現。



CHANEGE, 12min 19sec, video installation, 2019

**Q.** What is your representative work/exhibition? And why do you think so?

**A.** In my latest solo exhibition entitled 'Bank of the Future Limited' I focused on the society of "achievement-subjects" as it is defined in the book 'The Burnout Society' by philosopher Byung-Chul Han. I was interested in the symbolic places and characters representing today's society that can't be depicted anymore by the characteristic places of Michel Foucault's disciplinary world of hospitals, madhouses, prisons, barracks and factories. It has been replaced by the society of s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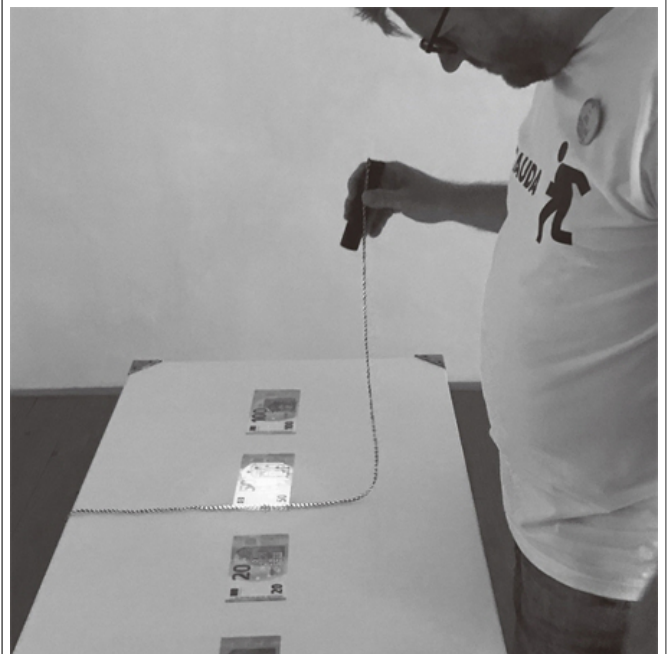


malls, fitness studios, airports, banks, etc. Because of their overflowing positivity, these symbolic environments are almost perfectly capa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y kind of revolt against the new regime of achievement society. Rather the increasingly threatening climate catastrophes are concluding the job worldwide instead of retired revolutionists with Molotov cocktails, having the only potential – however literally – to set our world on fire.

As one of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is the migration of people that is envisaged in massive proportions in the future. Migrating middle class to economically more prosperous countries is substituted with even cheaper workforce from even poorer countries. Crises – either economic or ecologic – dissolve the order that regulates relationships among people. For this project I used special transparent pigment – active only under ultraviolet light – to transform the design of banknotes and integrate ‘invisible’ scenes. I was inspired by one of Jorge Luis Borges’ allegoric stories. In the novel there are beings who are detained behind the mirror and one day they refuse to fulfil their punishment: the servile imitation of human gestures. In this project I was interested in the simultaneous depiction of the ideal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broken reflection caused by the self-destructive chase for ultimate positivity.







*BANK OF THE FUTURE LIMITED*, transparent UV-active ink, stamps, banknotes, 2019

**Q.** How do you think about communication between art and spectators?

**A.** Ultimately my artistic practice is based on the oppo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s. the current regime of late capitalism. Let me be clear in saying that I do believe in art's role in shaping of society and its potential to reach its audiences. Firstly, in the most basic level, it is evident that without art the world would be an infinite grey desert of bleakness. Secondly, most people agree that so called 'high art' is consumed only by a narrow elite. It might be so. But





*ÉGALITÉ, LIBERTÉ, FRATERNITÉ*, 210×245mm (3 pieces), engraved plexiglass with LED lighting,

2016

**Q.** Your wishes as an artist./ Your long-term plans./ Your goals and concerns, etc.

**A.** As an artist I wish to create more *'open works'* as Umberto Eco referred to the topic in his book *'The Open Work'*. The book discusses the powerful concept of "openness", the

artist's decision to leave arrangements of some constituents of a work to the public or to chance. I would like to improve my future works in that direction.

In one of my earlier performance art projects I decided to relax in a deck chair in the middle of the busy main square of a city. On a sign next to me the following text was readable: 'An artist has the right to just lay around all day gazing at the sky'. I was trying to draw attention on the rights of individuals (not only artists) for a fulfilling and dignified life in a world that leaves less and less space for contemplation. One of my concerns aims to the cultural policies worldwide. I wish that the decision makers will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role in society – who creates cultural value in most cases free of charge – providing proper conditions for their creative functioning without ideological restrictions and predefined expectations.









*ARTIST HAS THE RIGHT TO*

*JUST LAY ALL DAY AND WATCH THE SKY, performance, Czech, 2002*

□□□□ : [www.rolandfarkas.blogspot.com](http://www.rolandfarkas.blogspot.com)

---

□□□ □□□ **Tomoko KIKUCHI**



Based in Beijing, Tomoko KIKUCHI's photography, video, and video installation works examining the themes such as gender, social changes and war, focus on the people who live in cracks of a dynamically transforming society. For example *I and I* (2005-2013), *Lost Boundaries* (2012) are the photographic and video works about young Chinese LGBT people who wander about the unclear boundaries separating men and women, where big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exuality in urban youth. In every project she has been involved with their community fellow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se works visualize the energy of crashes out of conflicts, and the human power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and complexity of the world.

北京を拠点とするTomoko Kikuchiの、写真、映像、および映像インスタレーションの作品は、性別、社会変化、戦争といったテーマを扱っており、動的に変化する社会の隙間に生きる人々を捉えています。例えば『I and I』(2005-2013)、『Lost Boundaries』(2012)は、男性と女性を分ける不明確な境界線に徘徊する若年層の中国のLGBTの人々について制作された写真と映像作品です。すべての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長期間にわたってそのコミュニティとの交流に関与してきました。これらの作品は、衝突のエネルギーを可視化し、矛盾と世界の複雑性を乗り越える人間の力を見せつけます。



Exhibition view of *Go-Betweens: The World Seen Through Children*, 2014

*Lost Boundaries* ([][][] [][]) & *Wounded* ([] []), Video installation, color, 2014

## # Q&A

**Q.** Introduce your work in general and the process of creation/production.

**A.** Based in Beijing, my works examine themes such as gender, social change and war and focuses on the people who live in cracks of a dynamically transforming society. For example *I and I* (2005- present) and *Lost Boundaries* (2012) are photographic and video works about young Chinese LGBT individuals who wander about the unclear boundaries that separate men and women, and takes place where big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exuality in urban youth. *The River* (2013) is a photographic work about the life and death of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changes within the lives of fisherman living in the world's biggest and longest rivers. Through these works I try to visualize the energy of the crashes that form from conflicts, and the human power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and complexity of the world.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2

**Q.** What is your representative work/exhibition? And why do you think so?

**A.** *I and I* is a photographic series that witnesses rapid changes in China's society and social awareness through the lives of transgender people. This project visualizes their energy and power to overcome the pressure not only from society and family but also from themselves. From 2005 to 2013, when I was involved in this project, it was the turning point in the awareness of Chinese people in regards to gender. *I and I* portrays Chinese transgender people, from the dark days when they lived an underground existence, to when they began to discern a gleam of light, to depicting the conflicts and spirits that exist between their ideals and reality.

I think this project changed my previous working style and builds up to the current working style in which I am involved in the subjects and observe the world surrounding them over a long period of time. I think from this project I learnt to manage to se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jects and world from wider perspectives and angles.

**Q.** 如何 看待 你 的 作品 (你 的 作品) 和 你的 生活 和 创作 的 关系?

**A.** 我的摄影作品主要关注的是那些在边缘地带生活的人。他们往往被社会所忽视，但他们的生活却充满了戏剧性和矛盾。从2005年到2013年，我一直在拍摄这些人的故事。他们有的为了生存而挣扎，有的则在寻找自我。这些照片不仅记录了他们的生活，也反映了社会的现实。通过我的镜头，我希望能让人们看到那些被遗忘的角落，感受到他们的痛苦和渴望。

在拍摄的过程中，我遇到了许多困难。有时会因为资金问题而无法继续拍摄，有时会因为被拍摄者的不信任而陷入僵局。但我始终坚持了下来，因为我相信，每个人都有值得被记录的故事。我的作品不仅是为了艺术，更是为了发声。我希望通过我的照片，能引起社会的关注，让这些人的生活得到更多的尊重和理解。



*I and I* photography series, 2005-2013

**Q.** What is the inspiration, motivation, moment of your work?

**A.** My inspirations mostly come from people who I meet by coincidence or places where I was very strongly attracted without reason. In the beginning I usually have no intention to produce work with them but eventually the stronger and the more powerful their attraction are the more I involve in. It becomes a piece of work when my inner self resonates with the subject.

For some reason, the people and places that are strongly attracted to me, I realize later on,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my own inner issues and also the issues with myself and this world.

**Q.** 你的作品，你，你拍摄的人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4

**Q.** Your wishes as an artist./ Your long-term plans./ Your goals and concerns, etc.

**A.** I will continue the project *Dialogue* which I've been currently working. This is a project that takes place in Japan, South Korea and China. This photography and video installation work aims at evoking conversations of people who are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of historical and current issues in these three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his project I try to transcend the border, time and space to consider the essence of human nature.

**Q.** 艺术家 你 希望 什么 事情

**A.** 我 会 继 续 我 正 在 工 作 的 项 目 *Dialogue*。 这 是 一 个 在 日 本、 南 韩 和 中 国 展 开 的 项 目。 这 个 照 片 和 视 频 安 装 作 品 旨 在 引 起 人 们 对 于 在 这 三 个 不 同 的 国 家 中 的 历 史 和 现 在 的 问 题 的 对 话。 通 过 这 个 项 目 我 试 图 超 越 国 界、 时 间 和 空 间 来 考 虑 人 类 本 质 的 本 质。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2

□□□□ : [www.kikuchitomoko.com](http://www.kikuchitomoko.com)